박원자의 母情佛心 ❸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의 어머니



▶ 한줄 요약
"무서울 때에는 관세음보살을 찾아라"고 했던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의 어머니. 스님을 출가 수행자의 길로 이끌었던 안심법문이었다.

"군밤 석 되에 싹이 나면 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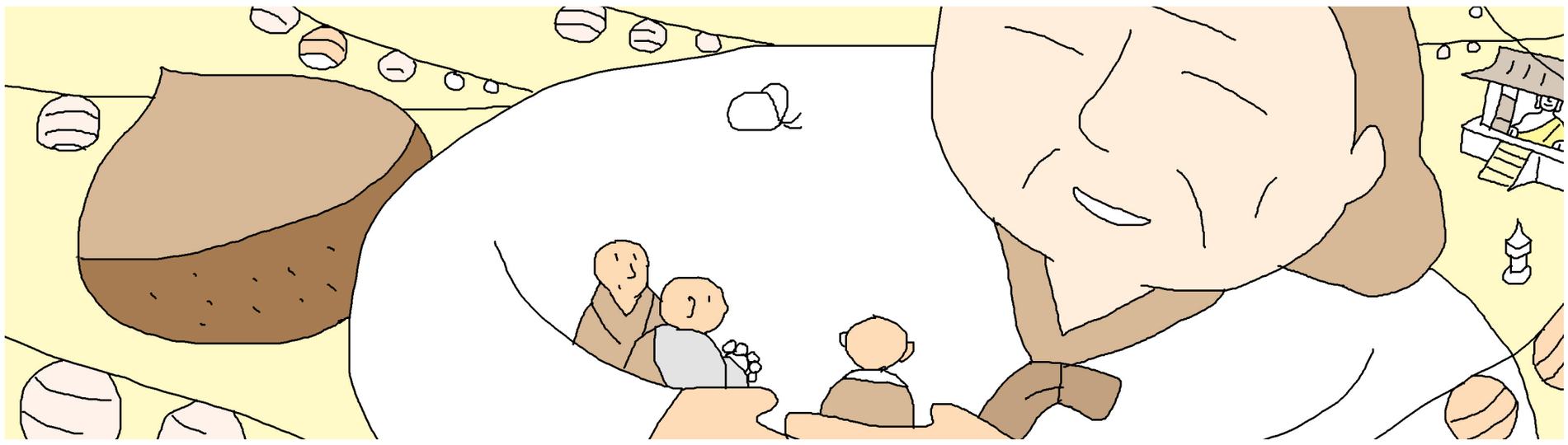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자식이 어릴 적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다닐 때 자식 생각이 났다. 그러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니, 가슴 속까지 후련해지는 강의를 듣거나 감동 깊은 책을 봤을 때 그들이 떠오른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공감할 때는 기쁨이 배가 된다.

누구나 경험했을 이 모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 부처님 당시의 일이다. 파사익 왕과 그의 부인 말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받고는 이웃나라 왕에게 시집간 딸, 승만을 떠올린다. 우리 딸과 함께 이 좋은 법문을 함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충분히 상상이 된다. 인류의 스승이 되신 부처님께서 설한 인생의 이치에 관한 법문을 들었을 테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는가. 당연히 자식도 그 기쁨을 맛보았으면 했을 것이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다.

이 지혜로운 부부는 딸 승만이 보리심을 발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다. 그리고 궁녀를 통해 편지를 보낸다. 승만은 여래의 공덕을 찬탄한 부모님의 편지를 받고 바로 부처님께 귀의한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딸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깨달음에 대한 깊은 마음을 내었고, 결과적으로 승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대승경전, 〈승만경〉을 탄생시켰다. 승만 부인이 부처님 앞에서 다짐한 열 가지 발원(승만부인 십대원)은 수많은 어머니들의 발원으로 이어졌으니, 실로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보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발원을 읽을 때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이 열 가지만 실천한다면 진정한 어머니 보살이 되리라 확신한다. 그 열 가지 원을 간단하게 줄여 소개하면 이렇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계를 범하지 않겠으며,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모든 중생들에게 화를 내지 않겠으며, 질투하지 않겠으며,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겠으며,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아낌없이 재물을 쓰겠으며, 보답을 바라거나 싫어하고 만족하는 마음 없이 중생을 거두겠으며,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보면 외면함 없이 도와주어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으며, 청정한 계를 범하는 이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거둬들이겠으며, 정법을 받아들여 끝내 잊지 않겠습니다."

그로부터 2600년의 세월이 흘러 한국의 한 비구니 스님이 〈승만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출간한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이다. 학인 시절부터〈승만경〉을 즐겨 읽었고, 출가해 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인연 있는 불자들과 이 경전을 함께 공부하며 그들을 교화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여, 순간순간 안녕하고 편안해지이다."

자식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하더라도 어머니가 흔들림 없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자식은 반드시 일어선다는 믿음으로, 스님은 이렇게 발원하고 있다.

"무서울 땐 '관세음보살' 부르렴"
모친 전한 '안심법문' 출가 계기
"어머니, 수행자 안내한 선지식"

아주 오래 전 나는 일진 스님의 출가 이야기를 들었다. 한참 뒤 스님을 다시 뵈었을 때, 어머님의 안부를 물었다. '내 출가의 첫걸음은 어머니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어머니는 나를 수행자로 안내해 준 선지식이었다' 는 스님의 고백이 각인되어 있었고, 늘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행복해 보이는 이 아름다운 수행자를 낳아 기른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스님이 들려준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이 무척 감동적이었다.

어머니는 마흔 살에 늦둥이 일진 스님을 낳았다. 1남 6녀의 막내였다. 어머니는 한 달에 두 번 서산 집 근처 팔봉산에 있는 암자에 올라갔다. 몇 대 독자인 아들을 위한 신성한 기도 때문이었다. 폭설이 내린 겨울 어느 날에는 호랑이가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 절에 올라가기도 했다. 부처님이 보호해주리라는 믿음으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고 했다. 그 곁에는 언제나 막내딸이 있었다. 바삭바삭하게 풀 먹인 광목 치마저고리에서는 언제나 풀 냄새가 났다. 지금까지 또렷하게 기억되는 어머니 냄새였다.

절에 가기 전, 정성을 다해 옷을 손질하고, 부처님께 올릴 떡을 만들던 그 신성한 몸짓이 곧 진정한 기도였을 것이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회하곤 한다. 오직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무잡한 그 간절한 마음이 불심의 자리 아닐까. 나는 자식을 위해서 저리도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를 해보았는지, '정성' 하나면 되는 것인데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다. 천둥번개가 몹시도 휘몰아쳤던 날, 먼 길을 걸어 쓰고 있던 우산마저 내던지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겁에 질린 막내딸을 꼭 품에 안으면서 어머니가 그랬다.

"무서울 때는 '관세음보살' 을 부르면 돼." 그때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던 그 포근한 느낌의 '관세음보살' 이라는 단어가 막내딸의 불심이 되어 가슴으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뒤 무서울 때는 꼭 관세음보살을 불렀고, 그럴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했다. 어머니가 선물한 '안심공부' 였다.

집 근처에 있던 서산 개심사에 자주 가셨던 어머니를 따라 다녔던 막내는 개심사 학인 스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언덕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설레곤 했다. 찰랑거리는 가사 장삼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스님들의 모습은 똑같이 아름다웠다. 무시로 가슴으로 스며들었던 그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해준 어머니였다. 개심사 스님들은 신심 깊은 어머니가 계신 집을 가끔 오셨고, 스님들이 오면 어머니는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해 올렸다. 이모처럼, 사촌처럼 가깝게 느껴졌던 스님들은 여섯이나 되는 따님들에게 '너는 내 상좌하자' 며 미소 지었다. 딸들의 가슴은 신심으로 물들었고, 그러는 사이 둘째와 다섯째 딸이 출가했다.

그리고 막내인 일진 스님은 초등학교 5학 때 출가를 결심했다. 서울로 유학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머니의 환갑날, 많은 식구들이 모였을 때 출가를 선언했다. 어머니는 든든해하며 말했다.

"그래, 언니 스님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는 한 남자를 만나 집을 떠나는 출가(出嫁)와 만인의 스승이 되는 길을 떠나는 출가(出家)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드님을 위해 신성에 가까울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첫 손자가 어렸을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상심으로 인해 더 발심하셨던 것 같아요. 세속에서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아셨을 테니 세 딸들의 출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겠죠."

그로부터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칠십 여 년을 해로 했던 지아비를 보낸 늦가을 날 밤, 어머니는 막내 딸 스님과 하룻밤을 보냈다. 쇠약해진 여든여덟의 어머니는 동갑내기 지아비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는 듯 불안해보였다. 따뜻하게 어머니를 위로하는 스님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스님, 이제 또 가셔야 되남유?"

"저, 그럼 절에 가지 말까요?"

"아닙니다, 가셔야 됩니다. 이왕 가셨는데 아주 가셔야지요."

스님은 그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진발심했다고 한다. 기왕 출가했으니 철저히 공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깊은 경책으로 들렸다는 것이다. 스님은 그날 밤, 어머니 머리맡에 입던 가사를 놓아두면서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잘 지내셔야 한다' 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어머니 곁을 떠나온 스님에게 얼마 후, 어머니가 곡기를 끊고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부모를 모셨던 아들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가셨으니 발 씻겨드리고 양말 빨 일 없지 않느냐.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이만 가련다."

딸 스님들이 모여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한다.

"추운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상을 치르느라 자손들이 고생해요. 그러니까 겨울 잘 나시고 내년 봄 개나리 꽃 필 때 가시면 좋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되남유? 옛날에 어떤 사람은 갈 때가 되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짐승에게 주었다는 군요, 그렇게 가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어유."

두런두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는 어머니에게 막내딸 스님이 물었다.

"아유, 그렇게 가셨다가 언제 오시려고요?"

"군밤 석 되에 싹이 나면 오지유."

다시는 윤회하지 않으리라 선언한 것이다. 세 따님을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 만인의 스승이 되게 한 어머니다운 선언이었다. 한 자식 출가에 구족이 승천한다고 했으니, 스님의 어머니는 영원히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셨으리라. 그 해 겨울, 둘째 딸 스님이 도반과 함께 동안거를 어머니 곁에서 났다. 마치 은사 스님을 시봉하듯 틀니를 닦아 드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만들어 올렸다. 운문사에서 강의를 하던 일진 스님도 짬을 내어 자주 어머니가 계신 대전 집을 오가며 어머니의 염불 정진을 도왔다.

수행자 따님들의 당부대로 어머니는 다음해 개나리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던 봄날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났다. 일진 스님이 운문사 강사를 오래 한 덕에 장례식에는 운문사 강원 졸업생 스님들이 모두 와서 염불을 하는 장관을 연출했다. 청아한 염불소리를 들으며 스님의 어머니는 본래면목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리라.

"출가해서 독신으로 수행한다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만 할까요? 열여섯에 결혼해서 여든아홉에 가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바세계의 길을 변함없이 정성스럽게 한 길로 가신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바세계에 오셔서 어머니는 할 일을 다 하고 가셨죠."

오랜 세월 강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이 땅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교화하고 있는 일진 스님께 진정한 어머니 역할에 대해 물었다.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정말 주인공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당당하면서도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죠. 웃으며 살아야 웃으며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품어내는 것이 어머니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품어내는 대지와 같은 모성을 지닌 어머니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내는 진정한 보살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다. 스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작가〉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서 현대불교신문을 검색하세요!
NAVER 검색창에 현대불교신문 을 쳐보세요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